



2025 교회 표어

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! (단 1:8)

주일 예배 순서	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
*기 원	목 도
*신앙고백	사도신경
*찬 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원으로 인도하는 (찬521) 잡아 주시네 (어린이처럼)
기 도	항인성 집사
성경봉독	다니엘 4장 1-18절
특별찬양	주께서 주신 동산에 -찬양대-
설 교	“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!” -박현수 목사-
광 고	인도자
찬 양	성령이 오셨네
*봉헌기도/축도	박현수 목사

*표는 일어서서
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 (Zelle 온라인헌금: highland.giving@gmail.com)

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.

- 금요 찬양 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
- Youtube QT 방송: 화요일, 목요일

P C A 하이랜드교회
 한인중부노회

Highland Presbyterian Church

담임목사 박현수 (Rev. Jason Hyunsoo Park, Pastor)

820 S. Milwaukee Ave. Vernon Hills, IL 60061 ☎(847) 634-6033
www.highlandchurch.com (web) highlandchurch1977@gmail.com (교회)
parkhyunsoo@hotmail.com (담임목사) hellofromhighland.com (EM Web)

◀ 새로운 습관을 만듭시다! ▶

사순절(Lent)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난 수요일(3/5)이 죄를 회개하는 ‘재의 수요일(Ash Wednesday)’이었고, 그 후 부활절까지,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. 신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경건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. 그러나 개혁주의는 사순절에 반대해왔습니다. 그 이유는 사순절이 ‘행위 구원’을 믿게 하고, 또한 ‘외식적인 형식주의’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. 곧 사람들은 사순절에 행하는 경건 생활이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여,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식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의 금식이 힘들기 때문에, 요즘 사람들은 ‘커피’등의 기호식품을 먹지 않는 부분 금식을 하거나,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합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, 사순절이 끝나고 다시 커피도 마시고 인터넷도 사용할 것이라면, 40일간 이를 금한 것은 그저 그런 노력을 기울인 자신의 행위를 공로 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나 또 사순절 기간을 잘 활용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. 사순절 기간 동안만 잠시 금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대신, 영원히 끊어내야 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. 술이나 담배 등이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었다면,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완전히 끊어냅니다. 인터넷 사용이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었다면,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분명히 줄입니다. 그 동안 말씀 묵상이나 개인적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, 하루 30분이라도 결단하고, 예배 참석도, 교회 봉사도 분명하게 결단합니다.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신앙의 새롭고 경건한 습관을 만듭시다 -박목-

◀ 광고 ▶

- 1/4분기 정기 제직회: 오늘 친교 후 분당
- 에녹회 총회: 오늘 예배 후 분당
- 기초 교리 성경공부: 3/30 주일 친교 후 첫 모임
- 친교: 이번주- 김중석 집사 가정/ 다음주- 배두현 장로
- 협력기도: 김영자(김택문), 김정평, 권순조, 이맹표, 이오덕
- 출타: 노재정 장로 가정
- 다음주 기도: 최의순 장로/ 금요일 예배 기도: 나순호 권사
- 3월 뒷정리: 1구역

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

담임 목사 박현수
 E.M 목사 정영준(Jonny)
 교육 목사 신준식(James, 유초등부)
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
 성가지휘 강수경
 반주 Adam Kastler
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

◀ 후원 선교사 ▶

케냐 - 강충만
 캄보디아 - 김석훈
 NOVO(NK) - 서예레미야
 니카라과 - 정연효
 REI - James Kang
 Global Hope - 조용중
 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